

투데이

“경남 어선, 여수바다 멸치잡이 안된다”

순천법원 ‘해상에도 道경계 존재’ 판결 전남도-경남도 해상 경계다툼 증지부

돈 되는 여수 해역의 멸치잡이를 둘러싸고 전남과 경남이 벌였던 해상 경계 다툼이 증지부를 찍게 됐다. ‘해상에도 도 간의 경계가 존재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29일 전남도는 “지난 24일 광주 지방법원 순천지원이 그동안 분쟁을 빚어온 전남도와 경남도 간 해상 경계 여부에 대해 ‘존재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남도와 경남도의 해상경계선은 오랜 기간 전부터 형성돼 어업 종사자들이 잘 알고 있고, 어업허가증에 조업구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 또 지방자치법 및 헌법재판소 판결과 부산지방법원 판결 등을 참고한 결과 해상경계는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여수시는 지난해 7월 여수 해역을 침범해 생멸치 30kg을 잡은 부산선적 기선권현방 A어선을 수산

업법 제61조 조업구역 위반으로 당국에 고발조치했다. 하지만, 선주 B씨는 전남과 경남 간 해상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촉발됐다. 현재 어선들은 잡는 방식과 어종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어업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어업 지역이 정해진 기선권 현방 어업이다. B씨가 경남도에서 어업허가를 받고도 전남지역 해역에서 고기를 잡았다는 것이다.

권현방 어업은 보통 2척의 끝배와 1척의 어망선, 1척의 기공선, 2~3척의 보조선 등 6척으로 한 개의 선단을 이루며 주로 멸치를 잡는다.

그동안 지자체 간 해상 경계는 구체적 기준이 없고 지난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지형도에서도 해상의 도서에 대해서만 관할 행정구역을 표시할 뿐 해상 경계 표시는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잦았다.

한편, 여수지역은 가막만과 여자만, 돌산도, 소리도, 거문도 인근 해역에서 멸치를 잡는 선단의 연간 평균 어획고는 30억원 안팎에 이를 정도로 황금어장이다. 이 때문에 경남 지역의 대형 선박들이 조업 구역을 침범하여 법적 분쟁을 일으켜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 임문택기자 mtlim@



나로호 1단 로켓 한국 도착

우리나라 우주발사체인 나로호의 3차 발사에 쓰일 1단 로켓이 러시아를 떠나 29일 김해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로과학위성, 나로우주센터 이송 완료

나로호 3차 발사 시 탑재될 나로과학위성이 29일 오전 9시 대전 KAIST에서 고흥 나로우주센터로 옮겨졌다. 나로과학위성은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항공·항공·무전동 트레일러에 실려 안전하게 이송됐다.

총 이송거리는 300여km로 대전에서 출발한 지 8시간 만인 오후 5시께 나로우주센터에 도착했으며, 점검을 거쳐 나로호 탑재 준비에 들어간다. 나로과학위성은 1992년 발사된 우리나라 최초의 위성인 우리별 1호에 이어 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에서

일곱 번째로 개발된 위성으로 1.2차 나로호 발사체에 실렸던 과학기술위성 2호의 기술을 활용해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됐다. 궤도 진입에 성공하면 1년간 300~1500km 상공의 타원 궤도로 지구 주위를 매일 약 14바퀴 돌며 우주환경을 관측하게 된다.

이 위성에는 레이저 반사경, 우주이온층 측정센서(광위어 탐침), 우주방사선량 측정 및 반도체유류 측정센서, 자세제어용 반작용 휠, 펄스토타 레이저 발진기, 적외선 소자 영상센서

등 첨단관측 장비 등이 실려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와 함께 나로호 3차 발사에 쓰일 1단 로켓이 러시아를 떠나 이날 오전 김해공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우리나라가 14호 태풍 덴빈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후 기상상황을 고려해 1단 로켓을 고흥 나로우주센터로 이송할 예정이다. 나로호 1단 로켓이 나로우주센터에 입고되면 10월 발사 예정인 나로호의 모든 구성품이 한데 모이게 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故 노무현 前 대통령 딸 정연씨 외국환거래법위반 불구속 기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딸 정연(37)씨의 외화 밀반출 의혹을 수사해 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29일 정연씨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의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정연씨가 송금한 미국 아파트 매매 대금 중도금 13억원의 출처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지인들이 준 돈을 모아 보관해 오던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정연씨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미국 영주권자 정연희(42)씨도 같은 혐의의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자금 제공자인 권 여사에 대해서는 딸 정연씨를 기소하는 점 등을 참작해 입건유에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연씨는 2007년 9월경 경제 수호의 미국 뉴저지 포트 임페리얼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박연 차 태광실업 회장을 통해 계약금 40만 달러를 송금한 뒤 2년 후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했다. 정연씨는 2008년 말 경제로부터 중도금 지급 독촉을 받았으나 정상적으로 해외 송금할 방법이 없자 미국에 있는 경제에게 국내에서 현금으로 받아가라고 요청했다.

경제를 알고 지낸 카지노 매니저 이달호(45)씨와 동생 권호(42)씨 형제는 경기도 과천 소재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권 여사의 친척으로부터 현금 13억원이 들어있는 박스 7개를 건네받았다. 연합뉴스

“광주, 문화산업 위해 첨단영상·인력 중심지 돼야”

韓銀 지역경제 세미나

광주의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광주를 첨단영상 기술과 해양 인력 중심지로 만들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29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개최한 지역경제 세미나에서 ‘광주 문화산업 육성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최종일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콘텐츠와 문화기술의 융합이 문화산업의 핵심 요소로 두드러지고 있다”며 이같이 제의했다.

최 교수는 문화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 융합과 연계를 통해 특화된 문화산업 클러스터 정책 현황을 정리하고 지역 문화산업이 발전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해외 지역 문화산업 성공 사례를 소개하며 설명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문화산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



성하기 위한 제안이 다양하게 나왔다. 박광석 광주시 문화예술과장은 광주시에 조성 중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옛 전남도청 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을 연계한 문화산업 육성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원기기자 cki@kwangju.co.kr

키로 했다. 기간제 교사의 성과급은 사·도교육청의 인건비 예산에서 지급되며 필요 예산은 14호공 기준에 최소 근무기간 6개월을 적용하면 38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교과부는 전했다. 교과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는 올해 4월1일 기준으로 모두 4만799명(초등 7886명, 중등 1만4164명, 고등 1만8299명)으로, 2008년(1만7691명)보다 크게 늘었다. 윤영기기자 perfoot@

내년부터 기간제 교사에게도 성과상여금

교육과학기술부는 기간제 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이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같은 업무를 하고도 그동안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됐다. 교과부는 기간제 교사가 근무 기간이 짧아 기존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사·도 교육청과 교원단체, 기간제 교사 대표와 논의해 연말까지 별도의 기준을 마련

Advertisement for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Center. Title: '국/가/공/인 한문지도사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생모집'. Includes details on enrollment dates, fe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공무원 대출' (Civil Servant Loan). Title: '대출금리:연5.5%~대출금액:1,000만원~8,000만원'. Details loan terms, interest rates, and application procedures.

Advertisement for '아이엘리시아' (AIELISIA) restaurant. Title: '주류서비스 -성인1인당, 평일평균 고객제-'. Promotes a 150+ menu and premium wine service.

Advertisement for '유스퀘어사우나' (YUSQUER SAUNA). Title: '24시간 유스퀘어사우나'. Promotes 24-hour sauna services and other amenities.